2015.2.8. 주일오후찬양예배 메시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13:8-16

심주환 선교사님

이번 캠프팀들, 담임목사님을 포함해서 19분이 다녀가셨는데, 그 외에도 기도로 물질로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일본에 들어간지 3년 11개월 째가 되었다. 2011년 3월 11일, 동북 대지진이 있었던 그해, 그 달에 일본 히로시마 현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의 상처와 아픔은 아직도 일본 내에서 가시지 않고 있다. 거의 회복 불능의 상태다. 끊임없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공포가 전 세계를 두렵게 하고 있다. 그 현장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들어가고 싶었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쉽지만은 않았다. 정착하는 시간도 필요했고, 문화와 언어 공부해야 할 시간도 필요했다. 그래서 들어갈 때의 그 열정을 현장에 다 쏟아붓지 못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일본의 끊임없는 재앙과 사고를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었다.

1. 말씀 그대로 재앙을 당하고 있는 현장

(1) 폭우 재앙

작년 8월 19일에 한 시간에 200㎜라는 물 폭탄이 쏟아져 내렸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야마모토 3쵸메(山本 3丁目) 동네에 산사태가 발생해서 어린이 두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가 알고 몇 번 인사도 했었던 가족들이었다. 그리고 또 하루 뒤에, 이번에는 한 시간에 300㎜의 비가 아사미나미구(安佐南區)와 아사기타구(安佐北區)에 내렸다. 결국 산사태가 나서 마을의 1/3 이상이 매몰되고 말았다. 지금 있는 사진이 일부인데, 물이 흐르는 줄기 밑으로 집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완전히 부서지고, 또 반파되고 해서, 3천여 가정의 집이 저렇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야기 산에서 물이 흐르는 계곡 줄기마다 물과 함께 흙더미가 쏟아져 내린 것이다. 일본 전국의 선교사님, 목사님, 성도들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어서 나도 이틀 동안 참여했었는데, 내가 맡아서 수리하러 들어간 집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턱까지 다 들어차 있었다. 피해를 입은 분은 없었고, 할머니 할아버지 노부부가 살았는데, 2층에서 주무셔서 화를 피할 수 있었다. 치우면서 바닥만 쳐다보느라 못 봤는데, 1층 난간을 고개를 들어 보니까 집 안에 불상이 서 있었다. 이러니까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왔다. 이것을 두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과 포럼을 했다. "왜 일본에 재앙이 오겠는가. 일본 전국에 800만 우상이 서 있기 때문이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면서 구호활동 하는 것도 좋지만, 1/3 정도는 집집마다 순회를 하면서, 피해를 만난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랬더니, 일언반구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건 누군가가 할 일이고, 우리는 여기에 자원봉사, 청소를 하러 왔으니, 이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일본 현지인 목사님들에게서는 영혼 구원, 전도에 대한 한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다. 19일에 폭우를 만나고, 20일에 선교캠프 차 후쿠오카로 내려갔었는데, 20일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었던 것이다. 20일에 우리도 후쿠오카에서 마침 산에 올라가 있었는데, 히로시마 영사관에서 모든 한국인에게 연락을 해 보니까 우리만 연락이 안 됐다고 난리가 나기도 했었다. 우리 집은 평지에 있는데도 물이 주차장까지 차오를 정도로 피해가 있었다.

(2)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무너뜨리심

9월에는 목회자 캠프가 있었는데, 일본 전체의 선교사, 목회자들이 47개 도도후켄(道都府縣 : 홋카이도, 도쿄도, 교토부, 오사카부, 나머지 43개 현)을 한 해에 세 곳씩 돌면서 캠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목회자캠프를 하는 동안에 나가노(長野) 현에서 온타케 산이 분화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저것이 온타케 산의 정상인데, 분진으로 인해 재가 수십 cm가 쌓였다. 산 정상에 신사를 세워놓았는데, 산악인들에게 메카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저기에 돌로 세운 우상이 있었는데, 이번 분화 때 머리만 날아가 버렸다. 마치 다곤신전에 언약궤를 갖다 놓았더니 신상이 엎어지면서 문지방에 목이 날아간 것 같은 형상이 되어 버렸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날리셨는데도,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는 것이다. 9월에는 온타케 산이 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사망했는데, 10월에는 후쿠오카에 있는 아소 산에서 분화가 일어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러다가 일본에 대재앙이 들이닥치는 게 아닌가 하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게 되었다. 이게 작년 8, 9, 10월에 일어난 사건이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바로 이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놀랍게도, 본교회에서 윤성주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지 않나? 우리도 저녁마다 함께 히로시마에서 참여했었다. 큰 은혜를 받고 우리도 당장 40일 작정을 하고 성경읽기를 시작했는데, 에스겔 1장부터 시작했었다. 그랬는데, 19일에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에스겔 13장의 본문이었다. 얼마나 소름이 돋고 끔찍했는지, 말씀을 바로 우리 현장에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 동네, 우리 구,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각인시켜 주셨던 것이다. '이래도 복음을 안 전할 것이냐, 네가 아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일본 선교에 대한 한을 더욱 품게 되었다.

2.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1) 뿌리깊은 우상숭배 체질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정확하게 현장을 보게 하셨고, 그 뒤에는 일본에 뿌리깊이 박혀 있는 우상숭배의 현장을 보게 하셨다. 작년 12월에는 야마구치(山口) 현을 이틀간 순회했었다. 유명한 곳을 가 보았는데, 다 신사였고 절간이었다. 야마구치에는 처음으로 일본에 천주교를 전파한 프란시스코 자비에르 기념 성당이 있었는데, 그런 현장을 둘러보면서, 이들의 DNA 깊은 곳까지 박혀있는 우상숭배의 현장들을 보게 되었다. 우리와 동행한 일행이 있었는데, 한국인 여자분이 일본 남자를 만나서 함께 사는 가정이었다. 같이 1박 2일로 여행을 갔었는데, 남편 직장과 집이 야마구치였기 때문에 안내를 해 준 것이다. 가는 곳마다 절을 하고 기도하고 동전을 넣는데, 우리는 지켜보면서 계속 결박하고 그랬었다. 중요한 것은, 부인인 여자가 천주교 신자다. 자기가 신실한 천주교 신자라고 처음부터 강하게 밝혔었는데, 그 얘기는 '나한테 종교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되게 열심히 믿는구나 생각했는데, 이 여자도 똑같이 신사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 부부가 나이가 많은데도 아이가 없다. 출산의 복을 비는 신사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아이가 없다. 용궁신사라는 곳을 갔는데, 그 천장에 보면 돈통이 매달려 있다. 거기에 동전을 던져서 한 번에 들어가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다. 그때 내가 장난기가 발동했다. 원래

내가 재미있지 않나. 그래서 누가 기도하려고 쌓아놓은 돈이 있기에 일부러 들고 던져 보았다. 그것을 보고는 나에게 '무슨 소원을 빌었느냐' 하는 것이다. 나는 '에라이, 이 우상 무너져라' 한 건데. (웃음) 그래서 일부러 그 순간에는 대답을 안 했다. 그리고 차를 타자마자 진지하게 대답했다. "나는 동전을 넣으면서 기도했다. 일본의 모든 우상숭배가 무너지도록." 해맑게 웃던 이 부부의 표정이 싹 굳어버렸다. (웃음) 나에게는 문화개혁이었다.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 가정이다. 이런 뿌리깊은 우상숭배의 현장을 하나하나 새롭게 둘러보는데, 이들을 복음화한다는 것은 정말 기초, 밑에서부터 건드려주지 않으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 종교통합과 우상 문화

그러고 나서 1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나가사키(長崎)에서 목회자 캠프를 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류 최초의 원폭 현장 두 군데가 첫째로 히로시마, 둘째가 나가사키다. 내가 일본에 들어오기 전에 읽었던 책이 '나가사키의 십자가'라는 책이었다. 처음으로 천주교 선교사가 들어왔었고, 최고 80%까지 천주교인이 되었으며, 핍박이 시작된 곳이었고, 순교자도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이었다. 그래서 한 번 가 보고 싶었던 곳이 나가사키였다. 히로시마에서 원폭 기념관을 가 보고 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했었는데, 나가사키에서도 그것을 발견하고 싶었었다. 그래서 가 보니까 비교가 되었었다. 히로시마는 창3장, 6장, 11장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원폭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군사 시설이 많았고, 원정을 나갈 때도 히로시마에서 모여서 출발하곤 했다. 교육의 도시이고, 성품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한데, 우상숭배가 심한 지역이다. 교육의 도시이다 보니까 교만이 심하다. 물질 중심, 자기 중심이다. 그런 창3장, 6장, 11장 때문에 원폭을 맞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나가사키를 보니까, 이곳은 행13장, 16장, 19장의 현장이었다. 완전 우상 종교 동네였다. 나가사키에 대해서, 가 보기 전에 나는 나름대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순교자가 많았었던 곳이니 조금은 영적 상태가 낫지 않을까,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그런데 가 보니 완전히 천주교 우상 동네였다. 10% 이상이 천주교 신자인데 교회는 14곳이었고, 교인은 300명 뿐이었다. 완전히 천주교 우상화가 되어서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만나본 14개 교회의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가톨릭이 너무 강해서 교회가 힘을 못 쓴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14개 교회의 협의회가 있었는데, 그 협의회의 회장 목사님이 나와 나이가 비슷했다. 95년 된 교회의 담임목사님이었다. 우리를 맞이하더니 어디로 사라지셨다. 어디 가셨나 했더니 2층으로 올라가서 파이프오르간 연주를 웅장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20분 동안 나가사키 안의 선교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우리가 관광객인 줄 알았던 것이다. (웃음) 그런데 결론적인 이야기가 에큐메니컬이었다. 종교 화합 이야기다. 어떻게 하면 가톨릭과 우리 교회들이 하나되어서 함께 갈 것인가 고민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충격이었다. 자신도 원래 천주교 집안이었는데, 중학교 때 크리스천 스쿨에 다니면서 자기 혼자 개종을 했다고 한다. 영적으로 가문의 배경이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당 행사가 있으면 자기도 초청되어 가서 메시지를 하고, 자기 교회에도 신부님들을 초청해서 메시지를 부탁한다고 했다. 천주교 우상화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폭이라는 재앙을 주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야기 도중에 그런 이야기도 들었다. 자기 교회와, 여기 남아있는 천주교 신자 중에는, 집안 대대로 믿어왔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이든 누구든 순교자가 있었기에 계속 믿고 있다고 했다. 새로 믿는 성도는 거의 없고, 어쩌다가 와도 정착하지 못하고 흩어진다고 했다. 그 말은 뭔가? 자기들은 다 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믿는 그대로, 가문의 전통대로 하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다. 본문에 나온 거짓선지자와 같은 모습이다. 평강이 없는데 평안하다고 말하는 모습

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공통점이, 둘 다 평화를 사랑한다는 점이다. 모든 국민의 생각 속에 평화가 새겨져 있다. 그러나 정작 평화의 왕 되신 그리스도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우상의 형상만 남아 있었다.

(3) 본질을 놓치고 우상과 타협하는 신자

'카쿠레(隠れ, 숨어있는)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있다. 일본의 순교 역사가 로마 때의 핍박 역사와 비슷하다. 250년 동안 핍박을 받았다. 박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했나 하면, 그 중 하나가 후미에(踏み絵)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모형이나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동판을 일 년에 한 번씩 전 마을 사람이 모여서 밟게 했다. 못 밟으면 즉결처형을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을 절에 예속시켰다. 그러니 다른 종교를 믿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 절의 허가가 없으면 다른 지방으로 이사도 못 간다. 또 핍박한 것이, 다섯 가정을 한 조로 두어서 서로 감시하게 했다. 그래서 조금만 이상하면 신고해서 크리스천의 씨를 말렸다. 이런 모습 때문에 혼네(本音)와 다테마에(建前), 속마음과 겉모습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이 정도로 핍박이 심했다. 한 번 찍힌 사람은 영원히 낙오자가 된다. 그게 이지메, 즉 따돌림의 문제다. 그런데 카쿠레 크리스천이 250년 동안 살아남았다. 멸절되지 않고 살아남았다. 나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모진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거였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다녀오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좀 과격한 생각이지만, 그 때 싹 죽었어야 했는데 하는 것이다. 진짜 본질, 그리스도, 복음은 없이, 껍데기만 붙잡고 250년을 버틴 것이다. 카쿠레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남았나 했더니, 후미에를 하는 날에는 전 가족이 새로운 신발을 신고, 목욕재계를 한 다음에 후미에 장에 가서 밟는데, 얼굴 대신 몸 쪽을 밟고 돌아온다고 한다. 그리고 돌아오면 온 가족이 밤에 회개기도문을 읽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런 생각, 마음 자체가 배교라는 것이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했나?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 죽으면 죽었지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러나 카쿠레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차라리 그때 신앙을 지키고 순교했었더라면 지금은 0.3%보다 많은 신자가 있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다. 뿌리깊은 우상숭배의 DNA다.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종교는 지켜야 하니까, 불상을 예수님처럼 믿고, 절에 가서 예불하는 것을 예배처럼 드렸다. 또 어떤 절에 가 보면, 카쿠레 크리스천들이 숨어 있었던 절인데, 절 마크가 십자가를 약간 구부려놓은 모양이다. 원래 절 만 자의 모양이 길이가 다 똑같지 않나?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처럼 밑을 길게 늘어뜨린 것이다. 그래서 절이라고 속인 것이다. 그런 식으로 타협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뿌리깊은 우상숭배의 배경을 우리가 꺾어야 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올해 원단메시지를 받으며 더 각인이 되었다. 우리의 한 해 주제가 '언약을 후대에게 각인시키는 교회' 아닌가. 정말 각인시키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과 현장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다.

3. 근본부터 살려내어야

(1) 각인전쟁으로 우상숭배의 근본 문화를 무너뜨려야 함

우리는 문화사역을 한다 무슨 사역을 한다 하면서 정상을 향해 계속 가는데, 피라미드의 윗변만 공격해서는 쓰러뜨릴 수가 없다. 일본이라는 피라미드는 밑변이 아주 견고하게 서 있다. 이것을 계속 파고들고 근본부터 건드리지 않으면 절대 살릴 수 없는 현장이 일본이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밑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제자로 세워야만 각인을 바꿀 수 있다. 1월 1일에 확인을 해 보니까 넷째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태명을 주권이라고 정했다. 하나님이 절대주권 속에 보내셨구나 하는 의미다. 선교의 주역은 1세대인 내가 아니라 2세대인 우리 자녀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율이, 시언이 같은 친구들이 일본과 세계를 살릴 주

역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근본, 회복, 도전을 통해 본질을 변화시켜야 함

참사랑 원단 메시지도, 본부 원단 메시지도, 우리에게 선교의 방향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 이것과 관련된 개인적인 내용들을 잠깐 나누고 마치려고 한다.

① 나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로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 중심적인, 창세기 3장으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계속 확인하게 된다. 일본의 우상 현장을 보면서 특히 더욱 그렇다. 선교의 역사도 오래 되었고 핍박도 순교자도 많았는데, 왜 이 지경이 되었나? 본질이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진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에덴동산을 이루어도 네피림 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 언약이 없기 때문이다. 물질 중심, 육신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매순간 성령충만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똑같이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아가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내 현장, 내 산업, 내 업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충만을 누리지 못하면, 나를 살릴 힘도, 교회와 세상 살릴 힘도 없게 된다.

②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 가지 근본에 방향을 맞춘다면, 우리를 통해 참사랑교회를 살릴 수밖에 없고,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③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로마를 향해서 도전해야 한다. 나의 로마는 일본이다. 일본, 유대, 세계복음화가 내 기도제목이다. 나를 통해서 일본, 자녀를 통해서 유대, 후대를 통해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기도제목이다.

결론 :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에게 질문하려고 한다. 원단기도회 3강 메시지 서론에서 말씀하셨지 않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내 인생의 위치에 대한 질문이다. 정말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나의 영적 상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다. 왜 예배를 실패하고 언약을 놓치고 동생을 죽이는 영적 상태에 있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이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요나에게 불신자가 던진 말이다. "자는 자여, 어찜이냐?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 인생의 방향에 대한 질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번 선교캠프를 통해서, 두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참여했다. 삼형제 중 가운데 아이만 살아남은 그 가정이다. 여기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렀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펑펑 울면서 갔다. 죽은 아이들이 생각나서 울고, 부부가 서로 마주보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다고 했다. 그분을 볼 때마다 나도 짠하다. 나는 본 적 없는 아이들이고 집사람만 두 아이를 보았었는데, 진짜 내 아이를 잃은 것처럼 마음이 아프다. 이번에 들었던 복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날에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리라 믿는다.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다. 생명초청예배 이후에 또 가족같은 분위기로 예배를 드렸다. (웃음) 일본 선교는 쉽지만 빨리 되지는 않는다. 기초부터, 밑바닥부터 치고 공격하고, 우리 아이들을 그 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어렵다. 이 일에 우리 참사랑교회가 동참하고 참여해 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내 일평생이 선교사로 쓰임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마지막 절을 보라. 망해야 한다. 창3장 밑바닥까지 가야 한다. 그래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고백이 일본 모든 국민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